

현대시를 통한 낙동강 수계 지역의 지리적 이미지 연구

김수정* · 조철기**

A study on Geographical Images of Nakdong River Region Represented in the Modern Poetry

Kim, Soo-Jeong* · Cho, Chul-Ki**

요약: 이 연구는 낙동강 수계 지역을 배경으로 한 현대시에 재현된 지리적 이미지를 시대적 상황, 지리적 하위영역,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들 시들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적 인구이동, 해방 후의 경제적 빈곤, 한국전쟁으로 인해 폐쇄화된 국토, 경제개발, 환경문제와 생태시, 장소감 등 시대적 이미지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시는 장소감을 통해 인문지리적 이미지를 비롯하여, 지형과 기후라는 자연지리적 이미지, 그리고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공간적 배경을 통해 볼 때 낙동강 상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는 황지를 비롯하여 안동 지역의 아름다운 지형이나 개인의 장소감을 노래한 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중·하류 지역과 관련하여서는 현실을 반영한 사회비판적인 시가 많다. 이것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비해 중류나 하류 지역에 대도시와 산업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고, 강이라는 지형이 하류 쪽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시는 시대적 상황, 지리공간적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낙동강, 현대시, 재현, 지리적 이미지, 장소감, 사회비판

Abstract: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geographical images of Nakdong River region represented in the Modern Poetr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aspect of the poetry around Nakdong River area shows the social phenomenon of population movement, economic deprivation symptoms, the Korean War, economic development plans, the industrialization and spatial inequalities, environmental problems and environmental poetry, and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etc. Second, the poetry about Nakdong River can be classified by geographical area, showing a humanistic geographical image of the sense of place, natural geographical images about geomorphology and climate,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inally, the large number of poetry describes the beautiful terrain and the sense of place of poet, among ones targeting the upstream of Nakdong River. The one in middle and downstream areas, however, reflected the reality and was social criticism mostly. This is because that, compares to the upstream, many large cities are distributed in the downstream area and the river becomes increasingly contaminated as it flows to the downstream.

Key Words: Nakdong River, Modern Poetry, representation, geographical images, sense of place, social critique

1. 서론

산다는 것은 지리 공간, 즉 장소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장석주, 2006, 27). 육지나 바다, 심지어 우주 의 한 공간에서조차 사람은 특정 장소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장소 또한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존재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인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 경험은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제한될 수밖에 없고, 문학 작품, 여행기, 신문 기사, 텔레비전 다큐멘터

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은 일상적인 매체로서, 사람들은 그 작품에 기술된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특정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문학 작품 속에서 단순한 배경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비유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며 작품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곽경숙, 2006, 89-107). 지리학이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이기 에 ‘강’이라는 요소는 지역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 경북대학교 대학원생(Maste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beejuflower@hanmail.net)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ckcho@knu.ac.kr)

인류의 문명이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강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면서 또한 인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관계는 많은 문학 작품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문학 작품 속에서 강의 원형적 상징은 여성이요 어머니며, 생명이자 죽음이다. 강은 삶의 여정과 같다.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기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듯, 강도 유량이나 유속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탄생시킨다. 그러므로 강은 특정 지역의 지역성을 밝히는 데 적합한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특정지역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를 할 때, 개별성과 주관성의 한계 때문에 한 개인의 장소감에 관한 노노그래프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나 소설, 에세이 같은 텍스트 속에 재현된 주관적 장소감을 특정 연구 주제에 메타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심승희, 2013, 97). 즉 장소에 대한 재현물의 해석을 통해 장소성을 탐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학 작품 중에 시는 소설과 마찬가지로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소설에 비해 압축된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 비유와 상징을 통해 얻은 언어로 특정 장소에 대한 지리적 이미지를 얻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시는 소설에 비해 많은 작품을 구할 수 있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시대별, 위치별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낙동강을 재현한 현대시를 통해 이에 재현된 지리적 이미지를 고찰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렇듯 하나의 자연환경과 문학이 오래전부터 소통해온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에 재현된 지리적 이미지를 고찰하는 것은 현대 문학지리학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낙동강을 대상으로 한 문학지리적 연구는 대부분 낙동강 수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산·경남 중심의 하류 지방(박태일, 1991), 낙동강 본류가 시작되는 상주 중심의 중류 지방(정우락, 2010) 등 낙동강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구는 특정한 시대적 상황에 한정된 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낙동강의 발원지부터 하구에 이르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현대시를 통해 재현된 낙동강 수

계 지역의 지리적 이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학지리학을 근간으로 한다. 작가들은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창작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탁월한 문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직접 지역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지리학자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시는 문학적 상상력뿐만 아니라 지리적 상상력이 반영된 것으로 문학지리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학지리학이란 장소와 경관에 대한 해설로서의 문학 작품이나 지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다(이은숙, 1992, 149; 2010).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장석주(2006)는 문학지리학이란 ‘특정 지역에서 꽃핀 문학적 자산을 자연 지리에 대한 관심과 연결해 그 지리의 위치, 지형, 인심, 풍속, 인물, 기후, 생태, 역사, 지역의 방언 분화, 공동체의 체험 등을 전체로 아우르며 그것이 문학 상상력에 어떤 자양분을 공급하고, 미학적 숨결을 불어넣었는가를 따지고 캐는 것’이라 하였다.

낙동강 수계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현대시에 대한 문학지리학 연구를 위해, 이 연구는 낙동강 제재시 86편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여기에서 ‘낙동강 시’라 함은 1920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시의 제목이나 본문에 낙동강 수계 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 현대시(시조와 동시 제외)를 말한다¹⁾. 본 연구에서 현대시를 분류하는데 적용한 기준은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한 1908년을 즈음으로 하였다(이승하 외, 2005, 4). 많은 시인들이 낙동강에 대한 시를 썼지만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만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작품이 문학지와 시집에 동시에 실린 경우에는 처음으로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김사림, 박태일, 안도현, 오세영, 이달희, 이동순, 이하석, 정진업 등 몇몇 시인은 낙동강에 대한 작품이 2편 이상인데, 그 지리적 이미지가 각각 달라서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달희 시인의 낙동강 연작시는 1971년 『물의 상징법』에 발표되었지만, 2013년 『낙동강 시집』에 재수록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시의 내

표 1. 연구 대상 목록(발표 연도, 제목 가나다 순)

연번	연도	제 목	시인	연번	연도	제 목	시인
1	1928	낙동강	양우정	44	1997	신천 세미나 1	이하석
2	1938	낙동강	김용호	45	1998	구포	천양희
3	1947	낙동강	이극로	46	1999	四月	문인수
4	1948	김해평야	정진업	47	2000	낙동강 하구에서	허만하
5	1948	洛東江	정진업	48	2002	낙동강	강은교
6	1949	洛東江	박 민	49	2002	양산천	박태일
7	1950	洛東江	김사엽	50	2002	우포	박태일
8	1952	낙동동류	이종두	51	2002	우포, 검은 보리밭	김명리
9	1954	洛東江의 遺言	김순기	52	2002	우포늪 옥새	배한봉
10	1956	별리	조지훈	53	2002	황강 16	박태일
11	1958	救命의 江	최기형	54	2003	눈썹나비1	장옥관
12	1958	낙동강·2	박현서	55	2003	바람을 기다리는 일	정끝별
13	1964	경부선 원동역에서	유치환	56	2003	우포늪	황동규
14	1964	洛東江 노래	이은상	57	2005	옥비의 달	박태일
15	1971	가뭄	이달희	58	2005	황지에 와서 토하다	이승하
16	1972	낙동강	이달희	59	2005	청둥오리	박수화
17	1974	남도감별곡	한찬식	60	2006	낙동강	오세영
18	1975	明禮에서	이유경	61	2006	낙동강	강은교
19	1977	河回에서	김종길	62	2006	황지	배한봉
20	1980	남강가에서	박재삼	63	2007	금호강	송재학
21	1981	가을	김사림	64	2007	낙동강	장옥관
22	1981	洛東江	안도현	65	2007	빈집	송재학
23	1981	삶의 터전	김사림	66	2008	하회에서	오세영
24	1981	우물가에서	김사림	67	2008	하회에서	정희성
25	1982	乙淑島에서	이달희	68	2008	황지를 들여다보며	김종길
26	1983	겨울 낙동강	김여정	69	2009	단천마을	안상학
27	1983	물의 노래	이동순	70	2011	검은 물	최영철
28	1984	낙동강의 바람	강은교	71	2011	늪의 내간체를 언다	송재학
29	1985	다시 낙동강	안도현	72	2011	별뿔별	김수정
30	1985	흐르지 않는 江	김규태	73	2011	죽 한 그릇	김수정
31	1987	금호강	송찬호	74	2012	다대포의 사랑	김필규
32	1987	주남저수지	정일근	75	2012	은어	권달웅
33	1988	1987년11월의 新川	안상학	76	2013	시골 창녀	김이뜸
34	1989	낙동강	이기철	77	2013	낙강과 백운	문인선
35	1990	을숙도	박라연	78	2013	병산서원에서 보내는 늦은 전언	서안나
36	1991	낙동강	조동화	79	2013	삼락천	윤원식
37	1991	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위하여	이승하	80	2013	이별연습	윤원식
38	1992	검은 강	이동순	81	2013	하회마을과 낙동강	박순화
39	1992	낙동강	이동순	82	2014	두 딸을 앞세우고	박태일
40	1993	낙동강의 이름으로	유안진	83	2014	무섬마을에 가다	박현수
41	1994	낙동 나루에서	이승하	84	2014	을숙도	박태일
42	1997	흐르지 못하는 江	강남주	85	2014	회원유원지 누대에서	상희구
43	1997	대가천 2	이하석	86	2014	1억 4천만 년의 미래	곽효환

용은 2013년 『낙동강 시집』을 참고하였고, 그 시집에서 밝힌 발표 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시의 내용이 너무 관념적이어서, 지리적인 이미지를 구하기 어려운 시는 제외시켰다.

우선 낙동강 시에 나타난 지리적 이미지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1920년부터 10년 단위로 분류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도 수록하였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는 한 작품씩밖에 수집하지 못했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특징 때문에 함께 묶었다.

다음으로 낙동강 시를 자연지리적 요소와 인문 지리적 요소, 그리고 응용지리와 관련된 지역개발과 환경오염 요소로 다시 세분하여 지리학적 영역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실 시라는 문학 작품을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 편의 시가 두 가지 이상의 지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느 영역으로 분류해야 하는가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대상 시 86편을 지리교육 전공 교사 두 명과 국어교육 전공 교사 한 명의 도움을 빌려 함께 분류를 하였다. 한 편의 시에서 지형과 지명, 기후와 장소감 등 두 가지 이상의 지리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시들이 많은데, 이 연구에서는 단편적인 문장에 매이지 않고,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석하여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제재 시의 공간적 배경을 낙동강 상·중·하류 지역으로 나누어 그 위치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낙동강 수계 지역을 상·중·하로 나누는 기준은 학자마다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정우락(2010)의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는 낙동강을 상류-안동권, 중류-대구권, 하류-부산권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오늘날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인 분류나 지형학적 분류와는 다소 다르지만, 문학적인 관점에서 낙동강의 지역성을 밝히는데 유용하다.

3. 낙동강 제재 시의 시기별 변천 양상

먼저 본 연구는 낙동강 수계 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한 현대시를 대상으로 1920년부터 10년 단위로 분류, 그 시대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

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낙동강 시는 1920년대 1편, 1930년대 1편, 1940년대 4편, 1950년대 6편, 1960년대 2편, 1970년대 5편, 1980년대 15편, 1990년대 12편, 2000년대 23편, 2010~2014년까지 17편으로, 총 86편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각 1편씩의 자료만 있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이 같으므로 한 단위로 묶어 분류하였다.

한국 현대시사는 1910년부터 10년 단위의 시대별로 뚜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 대상인 낙동강 제재 시 또한 현대시의 변천 양상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1) 1920~1930년대의 ‘강제적 인구이동’

한국 현대시에서 낙동강을 그린 최초의 시는 양우정의 「낙동강」(1928)이다. 일제는 1925년부터 10년 동안 낙동강 대치수라는 이름을 내걸고 김해들을 싹 수탈기지화 하였다. 옮겨 놓은 부분은 일본의 제국주의의 토지 수탈과 식민지 노예 상황을 그려놓았다(박태일, 1999, 295).

洛東江은 七百里/ 沃野千里엔/ 낫서른 사람들만/
모여서 드네/ 십리 만석 보고는/ 죄다 남 주고/
이 땅의 백성들은/ 다 쫓겨나네
- 양우정의 「洛東江」 부분

김용호는 1938년에 197행의 장시 「낙동강」을 발표하였다. 일제는 1910년 3월부터 1918년 11월에 걸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거대한 국유지를 창출하여 조선 최대의 지주로 부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조선 농민들이 토지에서 이탈되었다. 김용호 시의 옮긴 부분에서는 ‘땅을 재는 자(尺)’에 의해 계량화되어 수탈당한 우리의 땅에 대한 슬픔이 표현되어 있다. 국권을 잃은 백성의 ‘장소상실’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돌들 말렸다 풀렀다 하는 땅을 재는 자/ 어느새 새끼쇠줄이 논바닥에 드리눅고/ 흙구루마는 영이와 풀싸움하던 그 언덕을 짓밟고 달아났다// (.....)// 초조와 불안과 공포가/ 나흘 낮- 나흘 밤-/ 우리들의 앞가슴을 차고 뜯고/ 울대처럼 선 온 산맥의 침묵이 깨어질 때/ 고슴도치처럼

뺏뺏한 대지를/ 한 손에 휘어잡고 매어친/ 「쟁」
하는 너의 최후의 선언은 우리들의 절망 그것
이었다// 언제 너는 노아의 주구가 되었던 말
이나/ 언제 너는 폭군 네로를 피하였던 말이나
// (.....) // 북쪽은 구름이 깃들인 고향/ 우리
들은 구름의 의도를 따라 북쪽으로 간다

- 김용호의 「낙동강」 부분

양우정의 「낙동강」과 김용호의 「낙동강」에서는 일제와 지주들의 수탈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농민들이 도회지나 북만주, 연해주로 떠나는 인구이동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시대의 인구 이동은 이동유형으로 볼 때 ‘강요·강제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때의 배출요인은 일제의 식민수탈 정책 때문이다. 인구이동의 사회적 효과 중 하나로 사회적 지위 변동이 쉽게 일어나는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 농민들은 농토를 뺏기고 도시나 국외로 이동하여 더 낮은 계층으로 전락한 사례가 많다.

2) 1940년대의 ‘대립과 가난’과 1950년대의 ‘전쟁과 위로’

1940년대의 낙동강 시 4편은 모두 해방 후에 발표된 것이다. 해방기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시기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문학 매체들이 발간된 시기였으며, 시가 흥성한 시대였다(박용찬, 2011, 105).

이극로는 「낙동강」(1947)에서 “낙동강 칠백리 흘러 간 저 물이/ 태평양 위에서 태평가 부르네. // 진주 앞 흘러 온 저 맑은 남강 물/ 합강된 거름강 경치도 좋구나”며 낙동강 지류의 합류와 바다와의 합수를 노래하였다.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며 동시에 태평성대를 기원한 것이다.

김해평야는 낙동강 하구 부근에 형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충적평야이다. 그러나 1948년 정진업의 「김해평야」에서 ‘김해 들’은 ‘딸기 빛’이었다가 “뿔뿔”으로 변하는 노을에 젖어 있다. 대대로 농사를 짓는 “흙두더지”들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면서 “피의 요람”이다. 점차 산업화되는 국토 구조에서 고단한 농촌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만장대에 올라 바라는/ 내 고장 김해 들에/ 딸
기빛 노을은 타고 있었다// 가람은/ 연연 칠백

리를 감돌고/ 갈댓잎 함께 강바람에 나부대는/
사래 긴 보리 이랑에/ 모래 알로 영그는/ 수전
벼 포기// 거기 흙두더지의 나고 죽는/ 먼 피의
요람은/ 오늘도/ 피 같은 노을에 젖어 있었다

- 정진업의 「김해평야」 부분

1948년에 발표된 정진업의 「洛東江」과 1949년 발표된 박민의 「洛東江」은 해방 후 펼쳐지는 이념의 대립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가난’을 기술하였다. 하지만 강은 홍수라는 자연재해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刻薄한 祖上의 피와 눈물과 한숨이 저렸기에 檻樓한 蒼生은 죽어도(박민, 1949)” 잊지 못하는 삶의 원동력인 것이다.

뺏혀 있는 情熱이/ 悠久 七百里에 이르러도/ 江
두렁 마슬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물과
사람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조개 갈구리
/ 칼날을 세워도/ 햇바닥에 녹아드는/ 洛東江
잉어회/ 통발을 메워도 메워도/ 江물보다 오히
려 무서운/ 가난이 여기 있다

- 정진업의 「洛東江」 부분

불가사리처럼 때로는 防策을 밀고 썩은 서까래와 家畜과 屍體를 띄우고 그래도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泰然히 흐르는 버릇이 있다

- 박민의 「洛東江」 부분

한국 근대사에서 1950년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이 초래한 불안과 공포 등으로 남한의 문인들은 실존주의 사조에 빠져들게 되었다(이승하 외, 2005, 178). 1950년대 낙동강 시의 특징은 한국전쟁에 관한 시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은 각별한 뜻을 지니는데 남한으로서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피난문인들은 종군 문인단을 조직했고, 서정주, 조지훈, 구상, 박목월 등의 문인들이 발간한 『전선시첩(戰線詩帖)』은 1950년대 전반기를 대표하는 시집이다. 『전선시첩』은 육군 종군작가단의 기관지로서 반공주의와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일선 장병의 사기를 현양(軒昂)케 하고, 총후 국민의 전의를 양양케 하는 특별 임무”를 안고 탄생한 매체였다(박용찬, 2011, 98).

이 시대의 낙동강은 “사상도 언어도 문자도 소용없이 서로 다른 윤리의 상극”만이 있는 처절한 전투 현장을 의미한다.

思想도 言語도 文字도/ 소용없는 때여/ 歷史의 年輪도 系圖도/ 이제 오로지 單一한 要素로 還元하는 때여/ 洛東은 언제나 永遠처럼 흘러/ 梵寺의 鐘소리는 出勤簿처럼 正確하여/ 비늘인 양 조용한 思惟의 모노클리어/ 그러나/ 江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倫理의 相剋은/ 탱크와 그 랭크 프로펠러를 돌려/ 緘口한 堆塊를 向하여 咆哮한다.

- 김사엽의 「洛東江」 부분

특히 김순기(1954)는 군에 몸담고 있던 이로서 낙동강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전투 장면을 떠올리며 쓴 전장시를 남겼다. 「洛東江의 遺言」에서는 ‘지열, 지축, 회전, 지도’ 등 지리적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군사지도 위에 그려진 낙동강과 실제 전투 현장인 낙동강을 되풀이하여 그 참혹한 전투 현장을 기록하였다.

T.O에서 자꾸만 줄어 가는 것들이/ 數 없이 흘러는 핏줄기에/ 地熱이 冷却 되고 地軸이 녹스러/ 地球는/ 回轉하던 密度를 失蹤한다// 5萬分之 1 地圖 위에 물 드러진 鮮血은/ 아름다운 風景畫의 化身입니다// 휘어 잡은 指揮棒 끝에 맺힌 憤怒는/ 이 江邊에 익어 가는 노을입니다

- 김순기의 「洛東江의 遺言」 부분

1950년대에는 낙동강의 역사성을 기술하면서, 강 길이에 대한 표현들이 많은데²⁾ 특이한 것은 이종두(1952)의 「낙동동류(洛東東流)」에서 “洛東은 祖國의 목숨처럼 길고,/ 洛東은 七億兆年./ 洛東은 七億萬里”라고 그 길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낙동강의 유구한 흐름을 강조하여 한국전쟁을 극복해야 하는 시대를 위로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

3) 1960년대의 ‘경제개발’과 1970년대의 ‘다양한 삶의 모습’

1960년대에 남겨진 낙동강 시는 몇 편 되지 않

는다. 한국사적으로 1960년대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이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경제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으로 표현된 시는 없지만, 낙동강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경제 발전의 희망을 노래 부르고 있다.

이은상의 「洛東江의 노래」는 1954년에 발표한 「洛東江」을 개작하여 재수록한 것으로, “보아라 新羅 伽倻 빛나는 역사/ 흐르듯 잠겨있는 기나긴 강물/ 잊지마라 예서 자란 사나이들아/ 이 강물 네 血管에 피가 된 줄을/ 오호 洛東江 오호 洛東江/ 끊임없이 흐르는 傳統의 낙동강.”이라고 노래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이농현상이 계속되었고, 도시 빈민층 증가, 각종 도시 및 사회문제가 나타났다. 한찬식은 「남도감별곡(南道鑑別曲)」(1974)에서 타지에서 들어온 이주민의 향수를 표현하였다. “나비잠”은 간난 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말하고, 병주고향(並州故鄕)이란 오래 살아서 정든 타향을 고향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낙동강은 전쟁으로 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에 게 제2의 고향으로 새로운 장소애의 대상으로, 새로운 ‘뿌리내림’이 시작되는 곳이다.

드디어 故鄕은 잊었어라/ 北國 동무의 고향은 잊었어라/ 洛東江 슬픈/ 軍歌의 메아리 눈에 서리며/ 並州 고향 물길은 끝없어/ 드넓은 벌판에 나비잠이 드나든다.

- 한찬식의 「남도감별곡(南道鑑別曲)」 부분

이유경이 1975년 발표한 「明禮에서」³⁾는, 삶의 중심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낙동강가의 한 장소를 빌려 뛰어나게 담아내었다(박태일, 1999, 277). 시인은 1974년에서 1975년까지 고향인 밀양 하남의 사물들에 관한 시를 썼다. 시집 『하남시편』을 낼 무렵인 1975년은 ‘긴급조치’가 잇따라 발표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던 엄혹한 시절이었다. 그 무렵 시인들은 ‘겨울’이라는 상징적인 말을 자주 썼다(이유경, 2014). 「明禮에서」는 “무가 뿔혀 나간 무밭”이나 “무성함을 잃어버린 삼밭”으로 대유(代喻)되는 농촌의 피폐해진 삶을 김해나 창원 등과 같은 도시와 비교하면서 1970년대의 ‘도농격

차'를 보여준다.

저녁 연기들이 강 건너 金海 쪽으로 날아 간다/
그 위로 기러기가 끼룩거리며 해 진/ 昌原 쪽으로
날아 간다 기러기와/ 연기들이 다 함께 구름
이 되는 것도/ 明禮 강둑에선 환히 보인다/ 들
판 끝 마을/ 죽어서 문힐 묘지 하나도 없다/ 무
가 빠져나간 무밭과/ 모래가 뿌영게 일어서 있
었다/ 얼지도 않은 강물이 차갑게 밤 속으로 흘
러갔다/ 마른 삼다발이 뒤꼍에서 부스럭대며/
지난 여름의 무성함을 지껄이고/ 明禮는 들판
끝에서 지금/ 혼자 웅크리고 있다

- 이유경의 「明禮에서」 부분

4) 1980년대의 '환경문제의 대두'와 1990년대의 '생태시의 등장'

1980년대 후반부터 낙동강 제재 시는 대부분이 환경오염에 관한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의 이면에는 신음하는 산하가 있고, 특히 낙동강은 중·하류 지역에 이룰수록 심각한 수질오염 현상이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현실적으로 비판한 작품들이 시단의 주목을 받았다.

개구리 한 마리, 미꾸라지 한 마리 노닐지 않는
/ 너를 달디단 젓줄이라고 우기는/ 우리는 마음
이 비어 버린 백성

- 김규태의 「흐르지 않는 강」 부분

주남저수지에 와서/ 죽어 썩어나는 철새들의 주
검과/ 등이 휘어진 기형 물고기들을 본다/ 우리
나라 애국가 속으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속으로/ 무리지어 힘차게 날아가던 저 새들이/
말아이의 동화 속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던
어린 물고기들이/ 여기저기 죽어 떠다닌다

- 정일근의 「주남저수지」 부분

1990년대에 발표된 낙동강 시 11편 가운데 6편이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를 다룬 내용이다. 1990년대 낙동강에서는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였다. 이는 '낙동강 폐놀 오염 사건'으로, 구미 공업단지 안의 두산전자가 1991년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폐놀 30톤과 1.3톤을 낙

동강으로 유출한 사건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이 시대에 수질오염에 대한 시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을숙도'를 노래한 시가 나타난다. 이승하의 「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1991)에서 낙동강이 “내가 세계를 멋모르고 쓰는 동안 거품을 물고/ 내가 폐수를 슬그머니 버리는 동안 거품을 물고/ 신음하는 강”이 되어 버렸음을 “바다직박구리 우는 소리”로 표현하였다.

이동순은 「검은 강-어느 광산 근로자의 고백」(1992)에서 화자인 광산 근로자의 고백을 빌려 산업화와 몰염치한 기업이 낙동강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는 것을 알린다. 내일신문 2007년 7월 10일자에 따르면, 낙동강 황지 2지점의 수질이 엉망이며 그것의 오염원은 태백시 생활하수와 동점동 사군다리골 상단부에 있는 (구) 연화광산 폐기물매립지(광미침전지)이다.

1

검은 강이 흐른다/ 나는 상류 쪽을 거슬러 올라
가 본다/ 강줄기로 흘러드는 실개천/ 으쓱한 골
짜기엔 아연 광산이 연기를 뿜는다/ 나는 이곳
에서 사 년을 보냈다/ 원광에 황산을 들이부어/
아연을 빼내고 나면 검붉은 폐기물만 남았다/
그 걸쭉한 찌꺼기들을/ 우리는 '케이크'라고 불
렀다 (중략)

4

그해 여름/ 장마비는 줄기차게 내렸다/ 그런 밤
은 과장의 전화벨도 어김없이 울려댄다/ 그날
나는/ 황산 폐기물을 빨리 강물로 흘려보내라는
/ 특히 남의 눈을 조심해서 처리하라는/ 과장의
명령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 독극물을/ 결코 강
으로 쏟을 수 없다고/ 또 버려선 안 된다고 송
화기에 대고 외쳤다/ 그리고 나는 해고되었다

- 이동순의 「검은 강-어느 광산 근로자의 고백」 부분

강남주는 「흐르지 못하는 江」(1997)에서 낙동강 하굿둑의 준공으로 낙동강 하구가 “페스트 환자” 수준으로 오염되었음을 알린다. 이것은 오염된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대거 유입되고 있는데다 하굿둑 축조 이후 유속이 크게 감소하여 여름 가뭄이 들고 수온마저 높을 때는 조류(藻類)의 번식에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목이 콧콕 막힌다/ 긴 터널 지나며/ 시궁창 땀
국에 얼죽음이 된다.// 자유에 도달하기 전/ 앞
서 찾아온 사지마비.// 육신은 갈대에 걸리고/
안간힘하며 붙들던 뿌리마저도/ 허연 이를 내보
이며/ 페스트 환자의 얼굴이 된다.

- 강남주의 「흐르지 못하는 江」 부분

5) 2000년대 이후: 문학적 소재의 다양성과

개인적 장소애의 재현

2000년대에도 여전히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을 일으키는 시가 발표되었다. 강은교의 「낙동강」
(2002)은 “신음 소리 새나는/ 보랏빛 입술”이고,
박태일의 「양상천」(2002)은 “그물에 얽혀 뜬 왜가
리”가 죽어서 “폴리에틸렌 하얀 꽃을” 둘렀다고
묘사하고 있다.

2008년에는 오세영과 정희성이 「하회(河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회 지형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였다.

저녁 무렵 만대루에 올라 바라보노라/ 병풍같은
절벽 세상을 막아 서고/ 강물은 마을을 둘러 흐
르는데/ 이쯤에서 그만 나도 다리를 뺄고 싶다

- 정희성의 「하회에서」 부분

그리고 2008년에 발표된 안상학의 「단천마을」
(2009년)에서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적벽을 마
주한” 안동 도산면의 단천마을에 “개를 가져다 놓
으면 어쩌다 한번 짚은 자기 목소리가 적벽에 부
딛쳐 되돌아오는 소리에 놀라 더 큰 소리로 짚고
그러면 그 큰 소리는 더 큰 소리로 돌아”온다며
단애(斷崖) 지형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였다.

2000년대의 낙동강 시 23편을 분석하면 지형에
관한 시가 7편, 생태시가 3편, 인구이동에 관한 시
1편, 환경오염에 관한 시가 4편 그리고 문학지리
영역의 시가 8편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학지리 영역을 다시 살펴보면, 설화에 바탕을
둔 내러티브로서의 시 1편, 이육사 시인의 딸을
소재로 한 시 1편, 지명에 관한 시 1편, 시인 개인
의 장소감이나 장소상실에 관한 시가 5편이어서
다양한 문학적 소재가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발표된 시 중에서도 환

경오염에 관한 시가 계속 나타난다. 최영철은 「검
은 물」(2010)에서 강물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시커먼 수의에 덮였다”고 하였다.

누가 가래침을 뱉었다/ 오줌을 갈겼다/ 두 손
받들어 공손히 들이키던 물의 몸/ 시커먼 수의
에 덮였다/ 현화라도 하듯 경의라도 표하듯/ 담
배꽂초 비닐 부스러기 바쳐졌다

- 최영철의 「검은 물」 부분

윤원식은 「삼락천」(2013)에서 “도시의 굴뚝에서
/ 연기가 멈추지 않으면서” “줄줄이 뛰어오르던/
피라미, 강준치, 봉어가” 사라져 아버지를 시름에
들게 한 ‘삼락천’을 회상한다.

2011년 발표된 박태일의 「을숙도」(2014)에서는
“굴삭기 파도가 찍어대는 빨밭”에 “은박지 아파트
가” 반짝인다고 을숙도 지역의 개발과 환경오염을
묘사하였다.

새벽에 떠난 구름 거룻배가 높다 세월이 제 몸
에 웅크릿거리하듯 강이었다 바다였다 굴삭기 파
도가 찍어대는 빨밭 은박지 아파트가 빛난다
바람이 맥박을 쫓다 무릎 까진 대과가 웅성웅
성 멀다 내장을 녹인 패션들 선창은 어디였을
까 눈 감고 눈 내린다 깨벗은 발톱으로 뜯 기
름을 쪼고 쫓다 오라 어서 오라 한 시절 가라
앉을 하늘을 지고 나는 달린다 모래등 지도를
밟고 달린다.

- 박태일의 「을숙도」 부분

권달웅(2012)은 “나 여기 떠나 저 투명한 낙동
강으로 돌아간다면”, “명경처럼 맑은 명호천까지
거슬러 올라가/ 강바닥 속 은모래처럼 환히 비치
는 유년의 내 얼굴을 들여다보리/ 은어처럼 내 몸
에서 나는 수박향이 맡으리”라고 고향에 대한 장
소애를 은어에서 맡을 수 있는 ‘수박향’의 후각 이
미지로 형상화하였다. 그런데 이 시에서 나타나는
장소감이란 엄밀히 말하면 장소기억을 의미한다
(심승희, 2006). 장소기억이란 ‘과거를 현재에 소
생시키는 장소의 능력’을 말하며, 장소의 기억은 사
회적 기억의 생산과 재생산에 기여한다(Cresswell,
2004, 심승희 옮김, 2012, 135). 시인들이 고향을
노래하는 시의 대부분은 이 장소기억에서 출발한다.

2010년대 시는 지형, 생태, 지명, 문화 등으로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특정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장소애를 시라는 문학 작품으로 아름답게 재현하였다. 2010년대 낙동강 시는 2014년까지 다섯 해 밖에 되지 않지만, 연구 대상 88편 중 18편을 차지하며, 이런 추세로 볼 때 낙동강을 대상으로 하는 시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 낙동강 제재 시의 지리적 이미지

1) 지리학적 영역별 특징

낙동강 시 86편을 자연지리 영역, 인문지리 영역 그리고 지역개발과 환경오염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표 2). 환경오염은 자연지리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수가 많고 시대적인 특징을 살피기 위해 따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대상 낙동강 시 86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장소감을 포함한 문학지리 영역이다(26편). 그리고 지역개발과 환경오염에 관한 시가 18편이며, 자연지리 중에서 지형에 관한 시가 17편이다.

(1) 자연지리적 이미지
자연지리 영역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지형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라는 문학의 형태가 특정 장소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1960년대, 1970년대처럼 국토의 재건과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는 지형을 노래한 시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리고 21세기로 올수록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특정 장소의 지형을 형상화한 시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1991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작인 조동화의 「낙동강」에서 그는 할아버지 대까지 거슬러 오르는 장소애를 표현하였고, 특히 이 시에서 낙동강은 할아버지가 치는 “먼 산굽이 휘어져 돌아가는 墨蘭 이파리 하나”로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오래 응석받이 손주의 든든한 울이셨던 할아버지, 당신께서는 生前에 즐겨 자주 蘭을 치셨지. 눈부신 靑宣紙 위에 늘 알맞게 휘어져 있던 墨蘭 이파리./ 이제 나는 알겠네. 흰 달빛 아래 아득한 모랫벌이 한 장 靑宣紙로 깔리는 이 밤, 비로소 고개 끄덕이며 알아보겠네. 먼 산굽이 휘어져 돌아가는 墨蘭 이파리 하나. 한평생 휘어지고 또 휘어져서 마침내 아주 강물 위에 포개진 할아버지 그 墨蘭을.

- 조동화의 「낙동강(洛東江)」 부분

‘가뭄과 홍수’는 낙동강 수계 지역 연구에서 중요한 자연지리적 요소이다. “불가사리처럼 때로는

표 2. 낙동강 시 지리학적 영역별 분류

(영역)		(년)									
		1920~1949	1950~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4	합계	
자연지리	지형	1	2	·	·	2	2	7	3	17	
	기후	1	·	·	1	2	·	·	·	4	
	생태	·	·	·	·	·	2	3	3	8	
인문지리	인구	2	·	·	·	·	·	1	·	3	
	역사	·	4	1	1	·	1	·	·	7	
	경제(산업)	2	·	·	1	·	·	·	·	3	
	문화	장소감	·	·	1	2	6	1	5	8	26
		지명	·	·	·	·	·	·	1	·	
내러티브		·	·	·	·	·	·	2	·		
개발, 환경	지역개발	·	·	·	·	1	1	·	1	3	
	환경오염	·	·	·	·	4	5	4	2	15	
합계		6	6	2	5	15	12	23	17	86	

防策을 밀고 썩은 서까래와 家畜과 屍體를 띄우고
그래도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표표히 흐르
는” 「낙동강」(박민, 1949)은 “독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 독을 새로 쌓아 올렸지만/
번번히” 물난리라는 홍역을 겪게 만들면서도 떠나
지 못하는 「삶의 터전」(김사립, 1981)인 것이다.

낙동강 연작시를 『낙동강 시집』(2013)으로 묶은
이달희 시인의 1971년 발표작 「가뭄-洛東江·2」에
서는 낙동강 지역의 과우(寡雨)현상을 그리고 있다.
이 시에서는 ‘늪새바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허허벌판에는 늪새바람이/ 누렇게 흙먼지를 뿌
리며 불고 있었다./ 바람에 나부끼는 희디흰 낮
달 하나/ 텅 빈 하늘가에 근근이 걸려 있었다./
흰 두루미들 보이지 않고, 마른 저수지에/ 하얗
게 말라죽은 붕어들을 쪼고 있는/ 갈가마귀떼
갈가마귀떼./ 마른 땅에 금이 간 뼈들 앙상하
드러나고./ 농부들은 허겁지겁 벌판에 나가/ 피
쭉지와 감부기가 남은 벌판으로 나가/ 쓰러지고
있었다. 왜냐처럼/ 구부러지고 있었다.

- 이달희의 「가뭄-洛東江·2」 부분

이 시에서 나오는 늪새바람은 일종의 ‘편현상’
을 말하는 것이다. 편현상은 바람이 산 표면에 닿
아 그 바람이 산을 넘어 하강 기류로 내려와 따뜻
하고 건조한 바람에 의해 그 부근의 기온이 오르
는 현상을 말한다. 낙동강 지역에는 산에 의해 둘
러싸인 분지 지형이 곳곳에 있는데, 시의 공간적
배경이 된 곳도 아마 가뭄과 함께 편현상에 의해
서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어, 저수지가 마르고 벌
판엔 피 쭉지와 감부기만이 남았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에는 환경보호 의식과 함께 을숙
도나 대가천 등 낙동강 수계 지역 특정 장소의 지
형이나 생태에 관한 시가 등장하였다.⁴⁾ 1990년대
한국 시단에서 생태주의가 대두되었고 2000년 이
후에는 우포늪처럼 생태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노
래한 시가 많다. 본 연구에서 우포늪을 배경으로
쓰인 시는 모두 8편이며⁵⁾, 우포늪을 노래한 시가
2002년 이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강줄기가 문득 길을 잃은 그날 이후/ 늪은 오랜
침묵의 깊이를 알고 있었을까/ 새벽이면 어부가
깊고 아득한 과거를 깨우는/ 밤이면 한사코 꽃

망울을 담은 가시연꽃을 품은/ 1억 4천만 년의
미래를

- 곽효환의 「1억 4천만 년의
미래-우포늪에서」 부분

2010년대에는 낙동강과 그 지류의 지형에 대해
시각적으로 묘사한 시가 많다. 2011년 발표된 김
수정의 「별똥별」에서 낙동강은 “수박 순처럼 구불
구불” 곡류하는 하천이며, 김필규의 「다대포의 사
랑」(2012)에서는 “바다 품에 안기어 튕구는” 강물
이다.

박현수의 「무섬마을에 가다」(2014)는 내성천이
감아 도는 무섬마을의 지명 형성 과정과 함께 물
돌이 지형을 형상화하였다.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줄기에는 강물이 산에 막혀 물돌이동을 만
들어 낸 곳이 여럿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라
하여 무섬마을이라 불리는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
도리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마을 주변을 낙동강
의 지류인 내성천과 서천이 휘돌아 흐르는 대표적
인 물돌이마을이다.

물이 풍경을 감싸 안으면/ 물에서도/ 마을은 섬
이 된다// 물섬,/ 그 이름/ 오래 씻기어 무섬이
된 마을// 맑은 강물 휘돌아/ 잔모래/ 피라미
떼처럼 흘러오는데// 외나무다리 건너간 후/ 돌
아오지 않는/ 비릿한 첫 이름은 끝내 목음일 뿐
//말이 풍경에 가닿지 못하면/ 물에서도/ 마을
은 무섬이 된다

- 박현수의 「무섬마을에 가다」 부분

(2) 인문지리적 이미지

인문지리적 영역을 다룬 시는 그 주제별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장소감에 바탕을 둔
문학지리 영역이 제일 많다(26편). 그리고 다음으
로는 애국심이나 지역 사랑을 고취하기 위한 역사
지리적 영역의 시가 많다.

1920~1949년까지는 일제강점기와 해방이라는
국내외 정세에 의해 사회적 인구이동에 관한 시가
많다. 인구이동에 관한 시는 2000년 이후에도 나
타나는데, 그것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로 꾸준
히 이촌향도 현상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예
로 “집 건너 집이 한때 백백을 넘고/ 대사며 장날
엔 한 차로도 모자랐”던 우포엔 “우포 사람 없고/

움머움머 황소개구리만” 산다는 박태일(2002)의 시가 있다.

문화지리학적 영역 26편 중에서는 장소감에 관한 시가 23편으로 가장 많다. 이는 1970년대부터 시인들이 고향을 노래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한 장소애나 장소상실을 노래한 시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소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장소 정체성’은 장소에 개별성을 부여하거나,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을 제공하며 독립된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게 하는 토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경험이나 눈·마음·의도 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장소의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하다(Relph, 1976, 김덕현 외 옮김, 2005).

그리고 장소와 상관된 욕망 중에서 사람의 내면에 가장 끈질기고 깊이 고착된 것이 고향에 관한 것이다(장석주, 2007, 14). 고향을 오래 떠나 있어도 고향과 관련된 기억들이 쉬이 잊히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감각기관 안쪽에 존재의 근원경험으로 각인되기 때문이다(장석주, 2007, 38).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행정구역상 구미시에 속하지만, 공업지역이 아닌 면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빈집은 날로 늘어날 것이고, 시인은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랑”을 “폭설에 무너”지는 빈집으로 비유하였다.

나는 오래 폭설을 기다렸다/ 해평 마을의 빈집은
해면처럼 나를 빨아들인다/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랑,
낙동강의 결빙음, 매지 구름은/ 내 육체가 붙들던
난간이었다/ (중략) / 빈집은 폭설에 무너진다/
그 사랑에는 육체를 피한 흔적이 있다

- 송재학의 「빈집」 부분

(3) 지역개발과 환경오염 이미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80년대부터는 지역개발과 환경오염에 관한 시가 많다. 연구 대상 시 86편 중 18편이 해당된다. 이동순은 「물의 노래」(1983)에서 안동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대해, 문인수의 「4월」(1999)은 낙동강 호안공사 현장을, 박태일의 「을숙도」(2014)는 낙동강 하구의 지역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1983년 이동순 시인은 안동댐 수몰 지역을 토

박이말로 노래한 장시 『물의 노래』를 발표하였다. 안동댐은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에서 와룡면 중가구리까지 낙동강의 본류를 막아 만든 다목적 댐이다. 이 댐의 건설로 안동시의 6개면 54개 자연부락의 3,144가구가 수몰되고 2만 664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또한 댐이 완공된 후 낙동강 상류 44km 지점으로부터 1~6km에 이르는 지역에 안개가 심하게 끼고 가을철의 평균 일조시간이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드는 등 생태계와 기후에 이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때부터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과 수몰민에 대한 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 죽어 물이나 되어서
천천히 돌아가리/ 돌아가 고향하늘에 맺힌 물
되어 흐르며/ 예셨던 우물가 대추나무에도
휘감기리/ 살던 집 문고리도 온몸으로 흔들여
보리/ 살아생전 영영 돌아가지 못함이라/오늘도
물가에서 잠긴 언덕 바라보고/ 밤마다 꿈을 덮
치는 물꿈에 가위 놀리니/ 세상사람 우릴 보고
수몰민이라 한다

- 이동순의 「물의 노래」 부분

1985년 이후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과 금호강의 2차 지류인 신천의 하천오염과 생태파괴에 관한 경고가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⁶⁾ 금호강 오염에 관한 시가 연이어 등장한 것은 그만큼 대구공업단지의 개발과 성장에서 기인한 수질오염이 심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충북 보은 출신의 송찬호는 대학 시절 금호강의 심각한 수질오염과 공단 근로자의 삶을 예의 주시하였다.

그 강은 어둠의 천국이다/ 3공단*의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는 아침 혹은 저녁이면/ 꺼칠한 어
둠들이 굴뚝으로 퍼져 나와/ 으스스한 하수구에서
물려나온 어둠들과 살 섞이며/ 꾸역꾸역 흘러가
어둠강이 된다/ (중략) / 야반도주하듯 그 강을
떠나가던 건장한 사람들도/ 끈적한 그 검은 물
채찍에 휘감겨 발버둥 치다/ 허영계 고기 눈갈
로 뜨고 죽어도/ 그 어둠강이 얼마나 깊고 넓은
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 3공단: 대구시 북구 금호강 변에 위치한 공단 지대

- 송찬호의 「금호강」 부분

대구시에서는 일찍부터 발달된 섬유산업 등의 각종 공장들을 수용하기 위해 여러 개의 공단을 개발했다. 섬유·염색 공장을 집단배치하기 위해 대구염색공단과 검단공단을 조성했고, 대구 도심지 내의 공장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서대구공단·대구 제3공단·성서공단 등을 개발했다. 그 중 대구 제3공단은 1967년 착공하여 1986년 준공되었다. 그런데 이 공단지역에서 유출되는 폐수로 인해 금호강과 신천이 ‘끈적한 검은’ 물이 되어 갔다.

금호강은 “바람이 불면 강변 갈대밭에서 비파(琴)소리가 나고 호수처럼 물이 맑고 잔잔하다”고 해서 금호(琴湖)라고 불리었다. 이 맑은 금호강이 경제개발의 부작용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시인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부터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황지에서부터 금호강, 대가천 등의 지류를 거쳐 주남저수지, 울숙도에 이르기까지 낙동강 수계 전역에 걸쳐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현상이 시를 통해 재현되고 있다.

삼락천은 부산 사상구, 낙동강 하류의 작은 하천이다. 2014년 『낙동강에 햇살을 걸어두고』라는 시집을 발표한 윤원식은 시집 전체에서 “공업화라는 시멘트 속으로” 숨어버린 삼락천의 아름다운 얼굴을 추억한다.

삼락천 양지바닥에서/ 줄줄이 뛰어오르던/ 피라미, 강준치, 봉어가/ 도시의 굴뚝에서/연기가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 아버지를/ 시름에 들게 했다// (중략) // 삼락천은/ 그 후에도 침묵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얼굴을/ 한 뺨 두 뺨/ 가리기 시작했다/ 그나마 보여주었던 어두운 낮빛마저도/ 공업화라는 시멘트 속으로// (후략)

- 윤원식의 「삼락천」 부분

2) 공간적 배경의 위치별 특징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볼 때, 낙동강 상류는 태백·봉화·안동·예천·문경 지역, 중류는 낙동강 본류가 시작하는 상주·의성·구미·김천·칠곡·성주·대구·고령·함천 지역, 하류는 창녕·의령·함안·밀양·창원·양산·김해·부산 지역을 포함한다. 그 지류별로 보면 상류는 내성천·조령천·반변천·길안천,

중류는 위천·감천·신천·금호강·회안천·황강, 하류는 밀양강·남강·양산천 등을 포함한다.

낙동강 시 전체 86편 중, 공간적 배경이 드러난 시는 65편이다. 상류, 중류, 하류로 분류되지 않은 시는 시의 내용이 낙동강 전역을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시에서 정확한 지명이 나타난 것은 그대로 분류하였고, 정확한 위치가 기술되지 않았지만 지명이 있는 것은 시인의 고향이나 주요 활동 무대를 근거로 추적하여 그 위치를 분류한 것이다. 상류 지역인 시는 17편이고, 중류 지역 12편, 하류 지역 36편이다. 낙동강 시의 공간적 배경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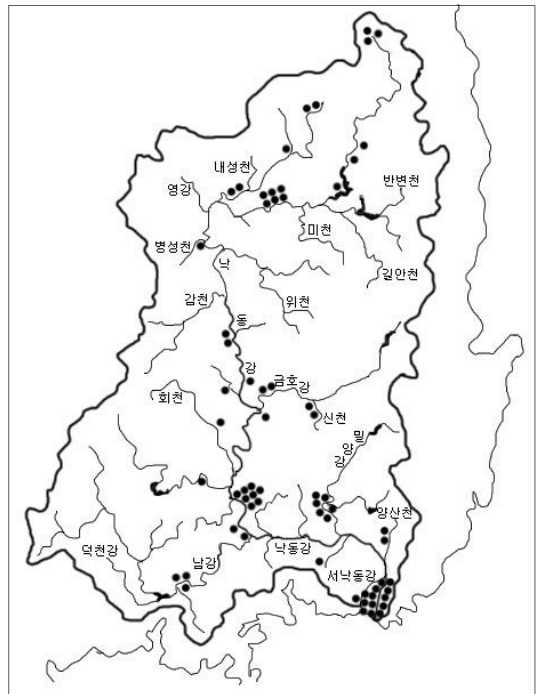


그림 1. 낙동강 시의 공간적 배경 위치별 분포도

(1) 낙동강 상류 지역: 경관 해석으로서의 문학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 86편 중, 낙동강 상류 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시는 17편이다 (표 3). 그 17편은 다시 지형에 관한 시 7편, 내리티브를 포함한 장소감 6편, 지역개발과 환경오염에 관한 시 4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황지에 대해 시인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주목하였다. 김종길은 「황

표 3. 낙동강 상류를 배경으로 한 시

발표	제 목	시인	공간적 배경	발표	제 목	시인	공간적 배경
1956	별리	조지훈	내성천	2008	하회(河回)에서	오세영	하회
1977	河回에서	김종길	하회	2008	하회(河回)에서	정희성	하회
1981	洛東江	안도현	내성천	2008	황지를 들여다보며	김종길	황지
1983	물의 노래	이동순	안동	2009	단천마을	안상학	안동 도산면
1985	다시 낙동강	안도현	하회	2012	은어	권달웅	봉화 명호천
1992	검은 강	이동순	봉화	2013	병산서원에서 보내는 늦은 전언	서안나	안동 풍천면
2005	옥비의 달	박태일	안동	2013	하회마을과 낙동강	박순화	하회
2005	황지에 와서 토하다	이승하	황지	2014	무섬마을에 가다	박현수	영주
2006	황지	배한봉	황지				

지를 들여다보며」(2008)에서 “태백시에는/ 한때 그곳의 지명이기도 했던/ 지하수가 솟구쳐 못이 된 황지가 있다”며 황지의 형성 유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런데 그 ‘황지’가 오염되었다. 2000년대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석포리 아연공장과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때부터였는지, “미공군 전투기 폭격 연습을 할 때”부터였는지 모른다. 이 황지가 신장투석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삼푸로 머리 감고 그릇 닦는 세정제”를 함부로 흘려보낸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이승하, 2005; 배한봉, 2006).

황지의 달이 파르르 떨고 있다/ 석포리 아연공장과 폐기물 처리장/ 굴뚝의 검은 연기 하늘에 금 그을 때/ 폐광의 갱출수 강바닥을 하얗게 채색할 때/ 철 성분 강바닥을 붉게 물들일 때/ 미공군 전투기 폭격 연습을 할 때// 모든 욕망이에서 발원하는구나/ 물고기 종적 감춘 황지의 입 틀어막고/ 높다랗게 세워진 밤의 카지노 옆/ 폐석 더미가 고대 유적 같다/ 시가지 곳곳에 괴물처럼 서 있는 타워크레인/ 누구의 입을 또 시멘트로 봉할 것인지

- 이승하의 「황지에 와서 토하다」 부분

눈물로 1,700리 강을 만드셨군요/ 오늘도 나는 삼푸로 머리 감고/ 그릇 닦는 세정제 흘려보냈는데요/ 당신, 내 식탁 위 유리잔 맑게 채우고/ 갈증의 시간을 서늘하게 적시는군요/ (중략) / 아, 신장투석 해야 하는 당신/ 태백까지 와서 당신 맑은 눈물을 마시며 깨닫다니요/ 비로소

당신 눈물샘 깊은 까닭 알게 되다니요

- 배한봉의 「황지」 부분

낙동강유역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살리기 협의회(洛協)가 황지를 비롯하여 낙동강의 오염 실태를 알리며, 「낙동강 발원지 태백(太白)의 환경과 문화」를 주제로 한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은 1994년 4월이다(김효중, 1994). 이에 비하면 황지의 오염에 대한 시인들의 자각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낙동강 상류 지역에는 물돌이동 마을이 많다. 안동의 하회와 예천의 회룡포처럼 무섬마을도 내성천이 마을을 감싸는 마을이다. 무섬마을은 시인 조지훈의 처가 마을이다. 혜화전문학교 시절 무섬마을의 처녀와 결혼, 처가 마을의 경치를 무대로 시 「별리」를 썼다(이성원, 2009).

상류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곳은 하회마을과 안동댐 수몰지구 등이 있는 안동이다. 상류 17편 중 9편이 안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 안동 풍천면의 하회마을(6편)은 그 특이한 지형으로 인하여 상류 지역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이다.

두리기둥 난간에 반만 숨은 색시의/ 초록 저고리 다홍치마 자락에/ 말 없는 슬픔이 쌓여 오느니/ 십리라 푸른 강물은 휘돌아 가는데/ 밝고 간 자취는 바람이 밀어 가고/ 방울 소리만 아련히/ 꿇질 듯 꿇질 듯 고운 피아리

- 조지훈의 「별리」 부분

오세영의 「하회(河回)에서」는 ‘최초의 국토시집’이라는 평가를 받은 『임을 부르는 물소리 그 물소리』(2008)에 실린 시편이다. 시집에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압록강에서 낙동강까지 우리 국토 곳곳을 예찬하는 108편의 시가 있다. 시인은 이전에도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시를 많이 썼으며, 시인은 태극 모양의 풍수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하회마을을 방문하였으며, 화산을 ‘꽃피’, 화천을 ‘꽃내’라는 우리말로 아름답게 형상화하였다.

물만 들을 감싸지 않는다/ 들도 물을 껴안고 가는/ 물도리동/ 하회에서는/ 누구나/ 서로를 받아 안고 함께 갈 줄을 안다./ (중략) / 음양(陰陽)의 풍수(風水)/ 태극(太極)의 이치가 여기 있나니/ 낙동강 하회마을 부용대(芙蓉臺)에 올라/ 세상을 한 번 굽어보아라./ 꽃내(花川)가 꽃피(花山)를 감싸들 듯/ 꽃피가 또 꽃내를/ 받아 안고 있을지니.

- 오세영의 「하회(河回)에서」 부분

(2) 낙동강 중류 지역: 현실 반영으로서의 문학 낙동강 중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12편)는 1980년대부터 나타난다(표 4). 본 연구 대상 현대시 중에서 상류나 하류 지방에 비하면 가장 늦게 등장한다. 이것은 낙동강 중류 지역을 고향으로 1940년에서 1960년대에 출생한 시인들(문인수, 이하석, 조동화, 송재학 등)이 이 시대부터 활발하게 시작(詩作) 활동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낙동강 중류지역 시 12편 중에는 지역개발과 환경오염에 관한 시가 4편이며, 장소감 4편, 지명 1편, 지형 2편, 생태 1편의 지리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 지역은 구미, 대구 같은 대도시를 포

함하고 있어서, 공단지역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중류 지역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곳은 금호강이다. 중류 지역 12편의 시 중 5편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호강과 신천에 관한 5편의 시 중 3편이 수질오염에 관한 시이다.

금호강의 심각한 수질오염에 대해 송찬호(1987), 안상학(1988)은 폐놀 방류 사건(1991년)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폐놀 사건 이후 1992년 발표된 이하석의 「신천세미나1」에서, “역한 냄새” 나는 신천⁷⁾은 “잡스런 것들의 덩불 아래는 사산한 아기들을 버린 구덩이에 독한 뜨거운 물이 고여 있었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검은 물만 흐르는 신천 가득/ 철새는 날아올 수 있을까 날아와/ 저렇게 시린 발목을 담그고 있어낼까/ 신천을 가로지른 철교 아래/ 신천동 산동네 사람들이 모여 나와/ 영세민 취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철새무리/ 장화를 신고 오물을 건지는 아저씨, 철새/ 수건 머리 쓰고 돌 나르는 아줌마, 철새/ 허접쓰레기 소각하는 할머니 철새, 할아버지/ 철새, 매캐한 연기는 바람부는 방향으로 누워 흐르고/ 하천둑에 붙박힌 녹색 깃발은 제자리 펄럭임을/ 하고 있다

- 안상학의 「1987년 11월의 新川」 부분

이하석(1992년)은 「대가천2」에서 “누가 강의 힘줄을 풀어놓느냐/ 강에는 은어가 올라와야 한다./ 그 밖에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대가천⁸⁾의 건강한 생태를 기원하였다.

낙동강 중류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는 적지만, 소재의 종류는 다양하다. 금호강을 중심으로 한 수질오염이

표 4. 낙동강 중류를 배경으로 한 시

발표	제 목	시인	공간적 배경	발표	제 목	시인	공간적 배경
1987	금호강	송찬호	금호강	2002	황강 16	박태일	황강
1988	1987년11월의 新川	안상학	신천	2007	금호강	송재학	금호강
1991	낙동강	조동화	구미	2007	낙동강	장옥관	칠곡 석적
1992	대가천 2	이하석	대가천	2007	빈집	송재학	구미 해평
1992	신천 세미나 1	이하석	신천	2013	낙강과 백운	문인선	상주
1999	4월(四月)	문인수	성주	2014	회원유원지 누대에서	상희구	금호강

나 지역개발, 범람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 시골 장터를 배경으로 한 지명, 농촌 지역의 인구 변화 등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3) 낙동강 하류 지역: 다양한 삶의 모습 재현으로서의 문학

낙동강 시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곳은 을숙도를 포함하는 하류 지역이다(36편)(표 5). 이것은 하류지역이 을숙도나 주남저수지, 우포늪처럼 특이한 자연환경을 가진 장소를 포함한 이유도 있지만 박태일, 김사립처럼 장소성을 잘 살리는 시인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박태일은 “우리 시(詩)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빌어 사회 공간 안쪽의 미세하고도 풍부한 차별성과 특이함을 찾아내는 장소의 지리학(topography), 공간의 정치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하였다(박태일, 1999, 342).

낙동강 하류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시에서는 하천의 침식 작용보다는 퇴적 작용이 만들어 놓은 지형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늪이나 평야, 하구 등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자연환경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낙동강 하류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곳은 우포늪(8편)이다. 송재학의 시 「늪의 내간체(內簡體)를 언다」는 고어체의 편지글로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였다.

표 5. 낙동강 하류를 배경으로 한 시

발표	제 목	시인	공간적 배경	발표	제 목	시인	공간적 배경
1947	낙동강	이극로	남강과 거름강 합수	2002	낙동강	강은교	부산
1948	김해평야	정진업	김해평야	2002	양산천	박태일	양산
1964	경부선 원동역에서	유치환	양산천	2002	우포	박태일	창녕 우포
1975	明禮에서	이유경	밀양 하남	2002	우포, 검은 보리밭	김명리	창녕 우포
1980	남강가에서	박재삼	남강	2002	우포늪 왁새	배한봉	창녕 우포
1981	가을 -송짓골 우화6	김사립	밀양	2003	눈썹나비1	장옥관	창녕 남지
1981	삶의 터전 -송짓골 우화14	김사립	밀양	2003	바람을 기다리는 일	정끝별	창녕 우포
1981	우물가에서 -송짓골 우화8	김사립	밀양	2003	우포늪	황동규	창녕 우포
1982	乙淑島에서-낙동강.34	이달희	을숙도	2005	청둥오리	박수화	하구
1983	겨울 낙동강	김여정	밀양	2006	낙동강-심연에 비추는 풍경 넷	강은교	다대포
1984	낙동강의 바람	강은교	부산	2011	늪의 내간체를 언다	송재학	창녕 우포
1987	주남저수지	정일근	창원 주남저수지	2011	죽 한 그릇	김수정	창녕 우포
1990	을숙도	박라연	을숙도	2012	다대포의 사랑	김필규	다대포
1991	돌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리며	이승하	을숙도	2013	시골 창녀	김이듬	진주 남강
1994	낙동 나루에서	이승하	의령	2013	삼락천	윤원식	부산
1997	흐르지 못하는 江	강남주	낙동강 하구연	2014	두 딸을 앞세우고- 표 문태님	박태일	밀양
1998	구포	천양희	부산	2014	을숙도	박태일	을숙도
2000	낙동강 하구에서	허만하	하구	2014	1억 4천만 년의 미래-우포늪	곽효환	창녕 우포

너가 인편으로 붓던 襟子에는 늪의 새넛만 찡긴
것이 아니다. 새털 매듭을 풀자 물 우에 누웠던
/ 亢羅 하늘도 한 응큼, 되새 때들이 방금 밟고
간 발자국도 구석에 꼭두서니로 염색되어 있다
- 송재학의 「늪의 내간체를 언다」 부분

우포늪을 노래한 시 8편 중 박태일의 「우포」에
선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농현상)이 나타나고, 김
명리의 「우포, 검은 보리밭」에서는 우포늪의 지형
형성에 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나머지 6편
은 우포늪에 대한 생태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시이다.

울속도는 1982년 이달희, 1990년 박라연, 1991
년 이승하, 2014년 박태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낙동강 시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낙동강 하구의
울속도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낙동강 중상류
와 부산 주변의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과 농업 및 생활 폐수의 유입, 인위적인
남획 등으로 철새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울속도를
지나는 하구언의 건설로 철새가 정박할 터전은 계
속 줄어들고 있다.

이달희의 「울속도에서」(1982)의 낙동강은 “그
끝자락에 오랜 세월 모래섬을 만들고, 갈대숲을
만들어” 새들을 키웠는데, 하구언 공사 이후 가속
화된 환경오염으로 “새들이 돌아오지 않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이승하, 1991). 그리고 2000년대 이
후에는 “굴삭기가 찍어대는 빨밭” 위로 “은박지 아
파트”가 반짝거리는 곳이 되고 있다(박태일, 2014).

밀양강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밀양은 1975년 이
유경 이후 김사립(1981), 김여정(1983), 박태일
(2014) 등에 의해 6편이 기술되었다. 이는 밀양을
터전으로 살던 김사립이 시에서 밀양 송짓골의 장
소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낙동강의 1차 지류 중 가장 긴 남강은 1947년
이극로의 시 「낙동강」에서부터 박재삼(1980), 김이
듬(2013) 등의 시에 등장한다. 박재삼의 시(1980)
에서 “강바닥 모래알 스스로 도는” 물 맑은 남강
은, 2013년에 이르러 “(유등제의) 다국적의 등불이
강물 위를 떠가고 떠내려가다 엉망진창 걸려있고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더러운 입김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 되었다(김이듬, 2013).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대시를 통해 재현된 낙동강 수계
지역의 지리적 이미지를 시대별, 지리학적 영역별,
공간적 배경별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낙동강 수계 지역을 노래한 시들은 시인 개인의
장소감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시공간적 상황을
매우 잘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기별 특징은 1920년대~1930년대는 일
제 강점기의 사회적 인구이동 현상을, 1940년대는
해방 후의 경제적 빈곤 현상을, 그리고 1950년대
는 한국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시가 많다.
1960년대는 경제개발계획과 새로운 희망을, 1970
년대는 도농격차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을 노래
한 시들이 나타난다. 1980년대에는 환경문제를 다
룬 시가, 1990년대는 생태시가 붓물처럼 나타난
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문학적 소재가 다
양해지고, 개인적 장소애를 재현한 시가 많은 부
분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지리학적 영역별로 보면, 인문지리적
이미지를 나타낸 시 중에는 장소감을 노래한 시가
가장 많고, 역사성을 강조한 시들이 시대별로 고
르게 분포한다. 자연지리적 이미지를 나타낸 시
중에서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장소의 지형을 재
현한 시가 가장 많다.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
대에는 인간에 의한 자연의 파괴를 노래한 환경오
염에 대한 시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배경을 상·중·하류로 나누
어 살펴보면, 상류는 낙동강 발원지로 알려진 황
지를 비롯하여, 안동 지방에 관한 시가 가장 많다.
낙동강 본류가 시작되는 상주부터 고령·함천 지역
을 포함하는 중류권을 대상으로 하는 시는 대개
수질오염, 자연재해, 지명, 인구분포 등 다양한 현
실을 반영하는 작품들이다. 낙동강 하류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가 가장 많으며, 이 지역은
울속도, 주남저수지, 우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생
태문제나 환경오염에 관한 시가 많다. 낙동강 상
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는 지역개발로 인한
폐해나 수질오염 문제 등에 대한 현실비판적 시보
다는 아름다운 지형이나 시인 각자의 장소감을 노
래한 시가 더 많다. 이에 비해 중·하류 지역에서

는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비판적인 시가 많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낙동강 상류 지역에 비해 중류나 하류 지역에 대도시가 많이 분포해 있고, 강이라는 지형이 하류 쪽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주

- 1) 낙동강 수계 지역이라 함은 낙동강을 포함하여 내성천, 반변천, 밀양강, 황강 등의 지류와 그 지류의 2차 지류를 포함한다. 조지훈의 「별리」처럼 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작품의 공간적 배경에 대해 널리 알려진 시는 포함하였다.
- 2) 이은상은 「낙동강」(1954)에서 ‘낙동강 천삼백리’, 최기형은 「求命의 江」(1958)에서 ‘출렁 출렁 흐르는 八百里’라고 하였다.
- 3) 여기서 명례는 시인의 고향이며, 경상남도 밀양의 한 지명이다. 시인은 밀양의 하남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낙동강 건너 김해시 진영읍의 진영중학교로 왕복 60리를 걸어 다녔다고 한다.
- 4) 흐르지 않는 강(김규태, 1985), 주남저수지(정일근, 1987), 을숙도(박라연, 1990), 대가천2(이하석, 1997) 등이 있다.
- 5) 우포(박태일, 2002), 우포 검은 보리밭(김명리, 2002), 우포늪 와새(배한봉, 2002), 바람을 기다리는 일(정끝별, 2003), 우포늪(황동규, 2003), 늪의 내간체를 연다(송재학, 2011), 죽 한 그릇(김수정, 2011), 1억 4천만 년의 미래(곽효환, 2014)
- 6) 송찬호는 1987년 『우리 시대의 문학』에 「금호강」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였고, 안상학의 「1987년 11월의 新川」이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 7) 신천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비슬산 최정상에서 발원하여, 가창면 용계리에서 대천을 합류하여, 대구광역시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북구 침산동에서 금호강으로 흘러든다. 신천은 1970년대 경제개발 과정을 지나면서 오물과 쓰레기로 오염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천이 홍수 조절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등 인간친화적인 자연공간으로 재정비되고 있다.
- 8) 대가천은 경상남도 합천군과 경상북도 성주군의 경계에 있는 가야산에서 발원하여 성주군 수륜면을 지나 고령군 운수면에서 회천으로 흘러드는 하천인데, 경북 고령군 출신의 시인은 「대가천」 연작시를 통하여 고향에 대한 장소애를 드러내고 있다.

문헌

- 곽경숙, 2006, 조명희의 『낙동강』에 나타난 자연 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29, 89-107.
- 김태준, 2005a,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상(국내편 1), 논형.
- 김태준, 2005b,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상(국내편 2), 논형.
- 박용찬, 2011, 한국 현대시의 정전과 매체, 소명출판.
- 박태일, 1991, 낙동강이 우리시 속에 들앉은 모습, 경남어문논집, 4, 19-56.
- 박태일, 1994, 김영수 시와 문학지리학, 한국문학논집, 15, 461-487.
- 박태일, 1999,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 심승희, 2006, ‘장소 기억하기’와 ‘장소 만들기’로서의 문학, 문학수첩, 겨울호.
- 심승희, 2012, 문학교육의 학제적 접근: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 문학교육학, 37, 87-124.
- 심승희, 2013, 문학과 지리학의 만남, 문학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308-338.
- 이승하, 2008, 세속과 초월 사이에서, 역락.
- 이승하·유성호·이명찬·고명철·남기혁·김유중·전도현·문혜원·맹문재, 2005, 한국 현대시문학사, 소명출판사.
- 이유경, 2014, 어리석음의 편력, 유심, 78(10월호), 유심.
- 이은숙, 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 역사 지리, 4, 147-166.
- 이은숙, 2010, 지리학 탐구대상으로서의 문학 작품과 지리학 연구수단으로서의 문학 작품, 문화 역사 지리, 22(3), 146-153.
- 장석주, 2006, 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 장석주, 2007, 장소의 기억을 꺼내다, 사회평론.
- 정우락, 2010, 朝鮮中期 江岸地域의 文學活動과 그 性格 -낙동강 중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시론, 한국학논집, 40, 203-257.
- 정우락, 2014, 기획논문: 한국한문학의 지역 간 교섭과 문화의 역동적 생성: 낙동강과 그 연안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韓國漢文學研究, 53, 173-213.
- Cresswell, T., 2004, *Place*, Blackwell, Oxford(심승희 옮김, 2012, 장소, 시그마프레스).
- Meinig, D. W. 1971, Environmental Appreciation: Localities as a Humane Art, *The Western*

현대시를 통한 낙동강 수계 지역의 지리적 이미지 연구

Humanities Review, 25.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td, London(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Tuan, Y. F., 1973, Ambiguity in Attitudes toward Environment,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Geographers*, 63.
- Tuan, Y. F.,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Prentice-Hall, New Jersey(이옥진 옮김, 2011,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 Tuan, Y. F., 1978, Literature and Geography: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Research, in Ley, D. and Samuels, M. S. (eds), *Humanistic Geography: Prospects and Problems*, Maaroufa Press, Chicago.

• 교신 : 조철기,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137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kcho@knu.ac.kr, 전화: 053-950-5857)

Correspondence : Chul-Ki Cho,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eachers Colleg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Buk-gu, Daegu, 702-701, Korea(E-mail: ckcho@knu.ac.kr, phone: +82-53-950-5857)

(접수: 2015.10.07, 수정: 2015.10.25, 채택: 2015.11.01)